

광주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비 494억 원 확보

16개 신청사업 모두 선정 내년부터 3년간 지원·6대 광역시 중 최다

국민체육센터·노인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 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

광주시는 정부가 주관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사업에 16개 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3년간 국비 494억원을 지원받는다 고 6일 밝혔다.

시는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등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 시민 생활밀착형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생활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체육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등 문화·체육·보육·의료·복

지·공원시설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생활 SOC 복합화사업 신청을 받았고 8~10월 평가·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광주에서 선정된 사업은 △서부 권역 노인복지시설 건립(시, 광산구) △장애인회관 복합시설 건립(시, 광산구) △복합공공도서관 건립(동구) △가족센터 건립(동구)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동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서구)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남구) 등 총 16곳이다.

선정된 16개 복합화사업에는 수

영양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공공·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노인시설, 장애인회관,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들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생활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지구본과 함께 시작된 중장축제 거리 퍼레이드

지난 5일 오후에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 제16회 '추억의 중장축제'에서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농어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선정

함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다양한 지원 최선"



함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구태립)은 '농어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수여식에 참여했다.

'농어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과 농협중앙회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된 수여식은 여성가족부 과장, 자녀안심재단 이사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참석하여 선정된 센터에게 수여식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전국 13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함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1차, 2차에 걸쳐 교육교재와 교통비, 식품 등 PC까지 지원받았다고 한다.

특히 2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함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전남 센터 중 유일하게 지난 농어촌청소년 꿈찾아Dream 프로젝트에 이어 농어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전했다.

함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구태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영광군 청년들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영광청년회의소 영광사랑상품권 3천만 원 구매 약정

영광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인기가 시들지 않는 가운데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영광청년회의소(회장 박민준)가 영광사랑상품권 구매약정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광청년회의소는 3천만 원의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각종 행사 용품 구입 및 격려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상품권 정기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와 동시에 부정유통 방지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민준 영광청년회의소 회장은



"우리 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군민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영광을 대표하는 청년 단체로서 조급이냐 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영광청년회의소를 시작으로 많은 단체들이 영광사랑상품권 구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영광사랑상품권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한빛원자력본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 구매약정은 총 19개 기관 및 기업체에서 24억 6천만 원의 구매를 약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카드형 영광사랑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를 병행 발행할 계획"이라며 "영광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우수축제

제147회

강진 청자축제

흙, 불 그리고 사람...

1000년 전 고려청자를 만나다.

in 강진청자축제

2019. 10. 3.(목)
~ 10. 9.(수)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